

STORY

05

내일을 그리다



## 북구의 행복마을

골목 어귀의 공동 텃밭에는 과실들이 별과 바람을 머금어 영글어 간다. 고갯길마다 뿌린 꽃씨가 며칠 새 봉우리를 틔우기 시작했다며 지나가는 이웃과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시멘트 빛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지만, 북구의 몇몇 마을에선 아직 낯설지 않은 일상이다.

스스로 행복을 꽃피우는 법을 깨쳐가고 있는 곳, 공동체의 가치를 향기로 발하는 북구의 행복마을을 소개한다.

### 나눔 꽃이 피었습니다, 덕천3동 철쭉마을

행복마을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철거와 재개발로 점철되는 기존의 도시개발과 달리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고 지역의 장점을 살려 자연의 생명력과 이웃 간의 정겨움이 넘실대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행복마을사업 이후, 철쭉마을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드는 도시공간을 조성했다.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 봉사단이 힘을 합쳐 오래된 주공아파트의 상가 옥상에 상자텃밭, 허브가든, 놀이터 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심고 가꾸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누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마을을 꿈꾸고 있다.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등 홀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철쭉마을 나눔밥상’을 개소한 것이다. 나눔밥상은 부산시

와 북구청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미더덕협동조합이 운영한다. 미더덕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조합이다. 주민공동텃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해 각종 밀반찬과 발효효소, 과일과 채소 말랭이 등을 판매하고 있다.

철쭉마을 나눔밥상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집에서는 몇 술 뜨는 게 고작이지만, 이곳에서는 꼭 한 그릇씩 비우게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에서 이 공간의 소중한 가치를 실감하게 된다. 나눔밥상은 점심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6년 11월에는 철쭉마을에 큰 경사가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2016 공동체 한마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이자 해당 시상식의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감동상을 받은 것이다.



철쭉마을 나눔밥상

결속력, 활동력, 지속력을 가지고 상생의 공동체를 꾸려 오고 있는 철쭉마을은 부산을 대표하는 모범적 지역 공동체 사례임에 틀림 없다. 행복의 천장을 높이기보다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느리지만 함께 가는 철쭉마을 사람들의 걸음이 아름답다.

### 스스로 찾아가는 행복, 금곡동 공창마을

‘공창’은 과거 동원진에 설치된 수참에서 일하던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이라 하여 붙은 지명이다. 공창마을 앞에는 경부선 철로가 가설되기 이전부터 나루터가 있었다. 감동진이 구포지역을 통하는 물산의 중심지였다면, 공창나루는 양산과 동래방면으로 오가는 미곡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잉어와 장어를 잡는 고깃배들과 낙동강 상류에서 곡물을 싣고 내려온 선박들이 배를 대던 곳이기도 했다.

공창마을을 포함해 4개의 자연마을로 이뤄져 있던 금곡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 단지로 변해 갔다. 공창마을은 유일하게 원래의 마을 모습을 지켜내고 있는 곳이다. 공창마을은 ‘키 작은 마을’이라는 별칭처럼, 아파트 숲의 그늘에 가려 멀리서 보면 폭 꺼진 형상을 하고 있다. 지리적 여건상 전형적인 낙후동네로 보이기도 하지만, 공창마을 주민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창마을의 주민은 그 말을 오롯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 공창마을의 공동체 복원 사업들은 주민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로 인해 마을 개선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 것이다. 웃음 강의, 미싱 강의 등 주민을 위한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자 출간, 마을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 마을 축제 개최 등도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로 뛰어 해낸 일이다. 특히 시나리오, 카메라 촬영, 출연까지 주민들이 도맡았던 공창마을의 단편영화는 2014년 부산시민영상공모전에서 장려상까지 받았다. 이 모든 것은 외부의 사업이나 지원 덕분이 아니었다. 마을의 자산을 찾고, 누리고, 간직하는 일에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한마음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공창마을행복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채용해 ‘행복 한 땀’이라는 의류 봉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 한 땀은 몇 년째 제법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 마을의 재정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가을에는 공창마을 느티나무축제가 열린다. 마을 어린이의 작품 전시와 지역의 댄스 및 연주 동호회 공연 등 축제 순서 하나까지도 지역민이 직접 꾸며 더욱 의미가 깊다.

거리가 분홍빛으로 물드는 4월, 금곡 주공아파트 1단지에 조그맣게 자리한 금빛공원은 벚꽃음악회 준비로 소란스러워진다. 공창마을 벚꽃음악회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마을 주민에게 봄날의 여유를 선물하고자 2015년부터 공창복지관에서 주관해온 행사다. 벚꽃만큼이나 예쁜 아이디어다.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북구



공창마을행복센터의 마을기업 '행복 한 뼨'



공창마을 주민들의 공동 텃밭

공창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들

사람을 바라보며, 오늘보다 한 뼨 더 행복할 북구의 내일을 그려 본다.

## 안전하고 살뜰한 마을공동체를 꿈꾸다

셉테드(CPTED)란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환경디자인을 일컫는 말이다. 북구는 유동인구가 적은 주거 밀집 지구와 안전시설이 미비한 노후 건물이 많아 범죄에 취약하고, 인근에 학교도 많아 어린이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원룸 밀집지역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인근 낙동북로 772번길을 '낙동안심길'로 지정하고, 골목을 새로이 단장했다. 방범시설이 없고 어두워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길은 셉테드 사업을 통해 바닥을 새로 깔고 비상벨, 태양광 LED 등, CCTV 등을 설치하면서 안전하고 든든한 거리로 탈바꿈했다.

최근에는 '안심마을 주민공동체 사업'의 시범 지역으로 구포3동과 금곡동이 선정됐다. 자발적인 지역안전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안전을 지키자는 사업의 취지 아래, 해당 지역은 연말까지 행복안심마을을 만들고 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관련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갈 계획이다.

마을지기사무소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고마운 공간이다. 마을지기사무소는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비슷한 수준의 유지관리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외부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활력을 증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북구에는 금곡동과 만덕1동에서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집수리 및 무인택배보관함 등의 서비스로 주민들의 일상에 기분 좋은 편의를 더하고 있다.

- **철쭉마을 나눔밥상** : 북구 의성로 127번길 117 / 051-332-3399
- **공창마을 행복센터** : 북구 효열로 275번길 12 / 051-362-6988
-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 : 북구 만덕1로 51번길 47
- **금곡동 마을지기사무소** : 북구 금곡대로 466 / 051-309-6283

## 북구의 미래 2030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오랜 역사와 이야기, 산과 강을 두른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인구. 북구는 물적, 인적, 역사적으로 풍요로운 자원을 품은 곳이다. 그리고 이를 디딤돌 삼아 북구는 내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

번성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발전한 경우가 많다. 템스 강의 런던, 세느 강의 파리 등이 대표적인 도시들. 부산도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낀 강변도시다. 그러나 과거 지역에 활기를 더했던 나루터들이 모습을 감추면서 낙동강은 그저 조용히 흐르는 것을 제 일로 삼아 왔다. 이에 부산시는 잠자는 낙동강을 깨울 계획을 세웠다.

‘서부산 글로벌시티’는 서부산을 지렛대 삼아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게 할 마스터플랜이다. 낙동강을 낀 북구, 강서구, 사

화명생태공원



상구, 사하구가 포함된 서부산을 문화, 관광, 산업, 생태가 어우러지는 글로벌시티로 조성하여 부산 전역의 기능을 서부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여 부산이 물류의 허브이자 동북아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변창조도시시는 이러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플랜의 일환이다. 서부산의 관문이자 오랜 역사를 지닌 구포역세권을 집중 개발하고 강변대로의 개통으로 가로막혔던 낙동강을 구포지역과 연결함으로써 서부산권과 김해, 양산을 연계하는 거점도시로 만들 요량이다. 이를 통해 북구는 교통과 물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강변창조도시로 거듭날 야심을 품고 있다.

### 옛 감동진 나루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다

감동진은 구포를 넘어 낙동강 하구의 중심이 되는 나루터였으나 옛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또한, 도시철도와 강변도로 건설로 접근성을 잃으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북구는 과거 감동진 나루터가 있던 물목을 문화와 역사, 생태가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옛 나루터와 선착장을 복원하고 광장을 갖춘 문화 포구를 조성할 예정이며, 나루터 역사관 및 낙동강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노을 전망 카페도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상레저 관련 계류장을 비롯하여 녹지, 경관데크 등을 조성해 화명생태공원의

활용도도 극대화한다. 낙동강변대로 동쪽 역시 친수거점지역으로 삼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멀티컴플렉스타운을 건립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심 기능 회복

구포는 과거 감동진의 번성을 원동력으로 상권이 밀집한 서부산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철로 가설로 길과 길이 단절되고 구포역의 KTX 정차횟수가 줄어들면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타지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도시의 혈색은 어두워지고, 변형했던 옛 구포의 이야기는 화려했던 무용담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구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낙동강 물류 중심지의 명성을 다시금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구포역 광장, 만세거리 등 역세권 인근의 유희 공간, 지역의 다채로운 역사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재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시와 창작, 문화시설을 마련해 상업 및 관광중심지로 거듭나는 한편, 철도 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와 유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은 ‘연결’이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주변 지역을 잇고, 거점을 조성해 사람을 이으며, 북구의 자연 및 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를 잇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단절된 구포가 아닌, 하나 되어 발전하는 구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이음 프로젝트’다.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사업,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등 기존에 수행 중이던 지역 활

성화 사업과의 ‘이음’을 통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된다.

###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북구 미래 100년

도시계획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언제나 그렇듯 ‘사람’이다. 북구의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들도 북구가 자랑하는 자연과 문화, 역사와 이야기를 사람의 삶에 녹여내는 일이다.

북구 지역의 도시 개발 사업들은 이러한 핵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안전과 복지, 문화를 통해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등 다양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목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개발이 자칫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어우러지는 도시, 상생하는 지역을 꿈꾸는 북구의 발전과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강변창조도시 조감도

